

# “충효동 생태문화마을 한옥 숙박 재검토해야”

광주시의회 “생태환경 집중...광주시민 공간으로 조성” 시, 45억 들여 7개 동 건립 내년 용역비 4500만원 편성

무등산 국립공원 원효사 지구 이전 대상지인 광주 생태문화마을에 조성하는 한옥 숙박 시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는 9일 내년도 광주시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생태문화마을의 한옥 숙박 시설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광주시는 북구 충효동 일대에 조성하는 생태문화마을을 9000㎡ 부지에 시비 45억원을 들여 한옥 7개 동을 건립할 계획

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2018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인증에 따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무등산 주변에 숙박시설이 부족해 수요를 맞출 수 없어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천500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올렸다. 시의회는 “생태문화마을은 외지 관광객을 위한 공간이 되기보다는 광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한옥 숙박 시설보다는 생태 환경을 가꾸는 데 집

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숙박시설 건립으로 인근 광주호 오염과 무등산 인근 신양파크호텔, 무등파크호텔, 평촌 반디마을의 민박 등과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전남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여수 오동재·영암 영산재 등 한옥 호텔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들어 적자 운영 문제를 제기했다. 2012년 개관한 여수 오동재는 2만7000㎡ 부지에 한옥 7개 동을 지었으나, 적자 경영을 이어오다가 3년 만인 2015년 매각을 결정하고 지난해 민간 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2011년 1만8000㎡ 부지에 한옥 7개 동

을 조성한 영암 영산재는 2015년 매각을 결정했지만, 아직 운영 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2022년까지 원효사 지구 내 시설과 상가(53개)를 생태문화마을 14만 2천㎡ 부지에 집단 이전한다. 사업비 398억원을 들여 음식촌(상가단지), 세계지질공원 플랫폼 센터, 숙박시설, 생태·체험단지,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한다. 내년 초부터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마련,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4월 공사에 들어가 2022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청 야외스케이트장 14일 개장

내년 2월 9일까지 운영

광주시청 야외스케이트장과 얼음썰매장이 오는 14일 개장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청 야외스케이트장은 1800㎡(60×30m), 얼음썰매장은 600㎡(30×20m) 규모로 내년 2월 9일까지 운영한다. 매점과 휴게실 등 부대 시설도 갖췄다. 이용요금은 1인 기준 시간당 1000원이다. 스케이트장·썰매장 입장료, 스케이트·썰매, 헬멧 대여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지난해와 같다.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은 50% 감면된다. 이용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20분까지다.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는 장애인스케이트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 스케이트장에는 지난 여름

광주를 뜨겁게 달궜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추억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도록 대화 마스크트인 수리·달이 포토존도 마련된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체험관도 운영된다. 체험관에서는 인공지능과 함께 하는 가위바위보 게임,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동물들과 만나는 체험, 가상현실(VR) 기기 체험할 수 있다. 야간에는 스케이트장 주변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꼬막전구 등으로 장식된 조경수, 발광다이오드(LED) 라이팅볼로 꾸며진 빛의 정원 등이 조성된다. 시청 야외스케이트장은 지난 2013년 처음 개장에 겨울 스포츠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도 농산시책 ‘우수’

쌀 경영안정·생산비 절감 인정

전남도가 쌀 경영 안정 및 생산비 절감 등 다양한 농산시책 추진 노력을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농산시책 평가에서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농산시책 시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1996년부터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 정책 추진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진다. 전남도는 식량의 안정 생산과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확대 및 농업인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시책 등 총 3개 분야 5개 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쌀 안정 생산량 확보를 위해 올해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전국 최다 면적인 7937ha를 이행했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최다 면적 확보로 농식품부로부터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1만9000t,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43개소 등에 총 354억원 상당의 국비를 인센티브로 배정받았다. 또 벼 재해보험 가입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10만2099ha(벼 재배면적의 66%)에서 가입, 전국의 31%를 차지했다. 다른 사도보다 월등히 많이 가입해 올해 태풍 ‘링링’ 등 연이은 3개의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시름을 일부 덜어줬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 벼 직파재배 면적도 9225ha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홍석봉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연이은 태풍 등 농업재해가 심한 어려운 한 해였지만 농산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농산시책을 발굴하는 등 WTO 개도국 지위 변경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식량·원예 분야 시책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는 9일 오전 영암군 삼호읍 호텔현대에서 ‘제56회 무역의 날’ 수출탑 및 유공 포상자 전수식을 가졌다. 선정일 전남도 국제협력관이 수출탑을 전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10억불 수출탑 금호피앤비화학(주), 3억불 수출탑 대한조선(주), 선정일 전남도 국제협력관, 3억불 수출탑 (주)세아엠앤에스, 5000만불 수출탑 (주)신안천

## 금호피앤비화학 10억불 수출탑 수상

전남도, 무역의 날 수출탑·유공포상자 전수식

전남도는 9일 영암 호텔현대에서 한국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관으로 제 56회 무역의 날 수출탑 및 유공 포상자 전수식을 개최해 1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금호피앤비화학(주) 등 43개 기업·유공자를 시상했다. 이날 전수식에는 선정일 전남도 국제협력관, 장춘상 광주전남기업협회회장, 우천식 전남중소기업진흥원장, 주동필 한국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수출탑 수상 기업은 모두 27개사다. 금호피앤비화학(주)이 10억 불 수출탑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대한조선(주)과 (주)세아엠앤에스가 3억 불, (주)신안천

사감이 5000만 불, (주)이더블유 케이 에이치피시가 2000만 불, (주)시그넷이 브이, 에이치에이엠(주), 완도물산영여조합법인, (주)남원 터보윈이 각각 1000만 불이다. (주)와이제이씨, 해도물산(주), 아이씨케이미칼이 각각 700만 불, (주)에이스솔루션, (주)엠.이.시, (주)에이엔티지, 어업회사법인 케이푸드(주)가 각각 500만 불, 디푸드(주)가 300만 불, 맛나푸드(주), 케이에스프레스(주), (주)태풍그룹, 대운프라스틱(주), 금빛영농조합법인, (주)케이엔제이, (주)바다명가, 청산식품, (주)죽암엘앤씨, 해양영여조합법인이 각각 1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출 유공 포상자는 16명이다. 마정락(주)세아엠앤에스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강현진 현대삼호중공업(주) 부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윤순신 대한조선(주) 팀장이 철탑산업훈장을, 신상훈 한국바스프(주) 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임재완 안도물산영여조합법인 본부장과 이종직 현대삼호중공업(주) 부장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 영예를 안았다. 노미숙 맛나푸드(주) 대표, 윤영호(주)와이제이씨 과장, 임계욱 디푸드(주) 대표, 이병학(주)남원 터보윈 대표, 백영식 해도물산(주) 대표, 이상영 한국바스프(주) 클러스터장, 아이씨케이미칼 윤강훈 대표와 정인기 부장 등 8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장현순 네시피&B 대표와 임동민 푸드코리아 대표가 한국무역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치어 방류사업 감성돔 2.07배 경제효과

7년간 1억7000만마리 방류 해수부, 3년간 경제성 조사

전남도가 안정적인 수산물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수산자원 방류사업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전남해역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7년 간 31종 1억6957만 마리를 방류해왔다. 방류하는 데 들인 사업비만 185억원이 들었다. 대하가 지난 7년 간 9017만 마리(사업비 8억원)가 방류돼 가장 많았고 보리새우(1686만·5억6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감성돔도 7년 간 무려 1602만마리가 바다에 방류됐다. 7년간 방류량으로는 꼬막(644만·5억 3000만원), 해삼(554만·23억8000만

원), 꽃게(542만·7억9400만원), 뱀장어(439만·4억8000만원), 점명어(360만·16억2000만원), 톨돔(333만·11억7000만원), 넙치(300만·10억1000만원), 참돔(183만·5억9000만원) 등도 많이 뿌려졌다. 매년 소득 기대 효과를 고려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군이 계획을 수립해 방류가 이뤄진다. 다만, 대하·보리새우·꼬막 등의 경우 크기가 작아 종자 구입·방류하는 양은 많지만 사업비는 적게 드는 구조라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방류한 만큼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해양수산부가 종류별로 시기를 정해 전국에서 진행된 방류효과를 분석한 결과, 감성돔의 경우 3년 간(2015~2017년) 전남지역에서 방류사업비 대비 2.07배의 경제효과를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보좌관 급여 착복’ 물의 나현 광주시의원 공식 사과

보좌관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물의를 빚은 광주시의회 나현(비례대표) 의원이 9일 공식 사과했다. 나 의원은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시민과 더불어민 주당,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에 격정과 실망을 끼친 점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이번 일로 큰 상처를 받은 보좌관에 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나만의 사정과 명분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인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웠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의 따끔한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두면서 다른 보좌관의 급여 명목으로 내야 하는 돈(매달 80만원)을 채용한 보좌관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는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나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나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